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 내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초등부 대성전) , 19:00	
			06:30 (새 벽)	10:30 (교 중)
			10:3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평일	06:30 (새 벽)	19:00(저녁)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 영적 예물

- 영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 이임 감사 및 영명축일 기도 선물
 - ①미사 및 영성체 ②묵주기도 ③성체조배 ④희생
 - ⑤영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을 위한 기도
 - ⑥제출기한 : 11월 21일(일) / 성전입구 봉헌함
- 정순택 베드로 서울대교구장님 착좌를 위한 영적 선물
 - ①미사 및 영성체 ②묵주기도 ③성체조배 ④희생
 - ⑤새 교구장님을 위한 기도
 - ⑥ 제출기한 : 11월 28일(일) / 성전입구 봉헌함

● 알 림

- 일상회복 1단계에 따른 변경 사항
 - 11월 1일(월)부터 성당인원 50% 입장가능(330명)
 - 레지오 및 소모임 시작합니다.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똑바로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평화방송으로 미사 참례합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죽은 이들을 위한 전대사 부여
 - 기간 : 11월 01일~30일(위령성월)
 - 조건 :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 기도 지향에 따른 기도(우울증이나 과로로 지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새 삶을 열어 가는 데에 필요한 도움과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오늘은 평신도주일 2차 헌금 있습니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새로 오신 교우를 환영합니다. (10/01~10/31)

구 역 반	성 명	세 례 명	이전 본당
23구역 4반	김지일	이사악	원주/성내동

* 2022학년도 꿀벌유치원 신입생 모집 안내 *

- 대 상 : 2016.1.1.~2018.12.31. 출생 유아
- 일반전형 접수 : 11월16일(화)~19일(금)
- 접수방법 :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온라인 원서접수
-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 참조
- 문 의 : 02-857-8545, 010-5797-8545

☞ 성경은 무엇인가?(2)

- 성경의 내용
 - 하느님, 예수그리스도, 인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예수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통한 가르침을 담고 있음.(구약과 신약으로 나뉨)
- 성경의 저술 시기
 -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까지 천년 이상.
- 성경의 저술가
 - 성경의 원저자는 하느님.
 - 인간의 지성과 의지를 움직이시어 당신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쓰게 하신 거룩한 책.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및 봉사자 모집 *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후원금계좌 : 신한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 다음 주일(11/14)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24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10월27일 ~ 11월02일)

• 교 무 금	9,948,000원		
• 주일헌금	3,986,000원		
• 오라토리오 2차 헌금	1,204,000원		
• 감사헌금	남희경10만원	황원선50만원	현보영 5만원
	전월례 3만원	장정림20만원	김성만 5만원
	설광옥 5만원	김수자10만원	박희분10만원
	조홍환30만원	우○○ 8만원	서만심 6만원
	김미혜10만원	한순복 6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11/07	이영민	하재민	정찬진	최승일	정연희
11/14	구민서	심재순	도현만	최웅조	김강자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1/07	박용환	최창열	손상민	이계명	박용환
11/14	박승환	김인기	최상남	박형순	김영배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105. 개인주의는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더욱 평등하게 더욱 형제답게 만들지 않습니다. 단지 개인들의 이익이 모인다 해서 온 인류가족을 위한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점점 더 세계화되는 많은 병폐에서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개인주의는 박멸하기 너무나 어려운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우리를 기만하고 고삐 풀린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전부라고 믿게 만듭니다. 마치 우리는 더욱더 큰 개인의 욕망을 쫓고 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그럭저럭 공동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인간을 증진하는 보편적 사랑

106. 사회적 우애와 보편적 형제애는 반드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인간이 지닌 가치를 인식하도록 요청합니다. 각 개인은 이처럼 위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다음의 사실을 명확히 확고하게 단언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원이 부족하고 발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그들이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실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사회생활의 기본 원칙이지만, 이것이 자신의 세계관이나 자신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7. 모든 인간은 품위 있는 삶과 온전한 발전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러한 기본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비능률적일지라도, 또는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성장의 한계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이러한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능률성이나 한계들은 인간으로서 지닌 위대한 존엄을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이 존엄의 기초는 환경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타고난 가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형제애와 인류의 생존을 위한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108. 일부 사회는 이러한 원칙을 부분적으로만 수용합니다. 그러한 사회들은, 기회는 모든 이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모든 것은 개인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왜곡된 시각에서는 “뒤쳐진 이들이나 힘없는 이들, 능력이 모자란 이들을 돕고자 투자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보일 것입니다. 힘없는 이들을 돕는데 투자하는 것은 이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일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특정한 경제, 정치, 사상 체계를 뛰어넘어 바라보고 개인과 공동선을 먼저 생각하는 적극적이고 참여하는 국가와 시민 사회 기관입니다.